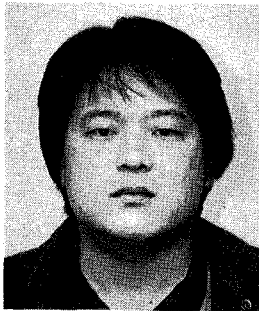


# 민주도의,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 펼칠때다



李革宰

(조선일보·사회부기자)

현대, 대우, 롯데, 두산, 대한항공, 한국화약, 미원, 포철, 럭키금성, 한국전력, 대농, 태평양화학, 한국중공업, 유한킴벌리…….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다. 이들은 또 환경처가 매달 발표하는 오염물질불법배출기업명단에 단골로 등장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환경담당기자로서 국가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이 환경오염의 「주역」자리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곤혹스럽다.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갖고있는 것도 아니면서 대기업의 환경오염보도가 계속될 경우 그렇지않아도 부정적인 대기업이미지가 회복불능상태로 까지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쓸데없는 걱정까지도 하게된다.

그러면서도 「왜 돈많고, 그래서 오염방지에 투자할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단속때면 단골로 적

발될까」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 나름대로 할말은 많을 것이다. 먼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기업으로부터 듣는다. 생산량이 급증하고 일부 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나 잠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란 주장도 듣는다. 모순많은 환경관련법에 의해 단속이 실시돼 실제상황이 과장된 것이란 변명을 접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업의 「이유있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해물질이 배출된 사실과 우리의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수출난 경기침체등으로 정부에서도 환경보다 경제재건에 치중한 대책을 발표하는 요즘, 기업이 과연 환경에 신경쓸 여유가 있을 것인가란 의문도 든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공해가 심각한 울산에 내려가 현대자동차파업을 취재했었다. 회사내 잔디밭에는 연일 2만여명의 노조원들이 「구속자석방」, 「임금인상」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었다. 본관 2층에서는 또 노사간에 저녁 4시부터 짧게는 다음날 새벽1시, 길게는 아침6시 30분까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노사간 침예한 주장이 오고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기업이 환경에 염두를 둘 여유와 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환경보호란 배부른 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했다.

실의에 빠진 기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준 것은 한장의 유인물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배부한 「70만울산시민의 소망」이란 제목의 이 유인물은 울산의 공해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환경오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대기업이다. 그러나 환경이 대기업의 것만은 아니고 대기업의 환경관에 각성을 주는 의미에서도 이같은 일반국민의 활동은 중요하다. 어차피 대기업의 환경정책이 수동적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국민의 환경에 대한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처는 현재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보호에 있어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나온 것이다.

현재 案수준에 머물고있는 이 수칙은 ▲물자 덜 쓰기의 생활화 ▲합성세제 덜 쓰기 ▲일회용품사용자제 ▲위락지에서의 쓰레기 덜 버리기 등 17개항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마지막17항은 「이 수칙을 서로 알려 우리모두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자가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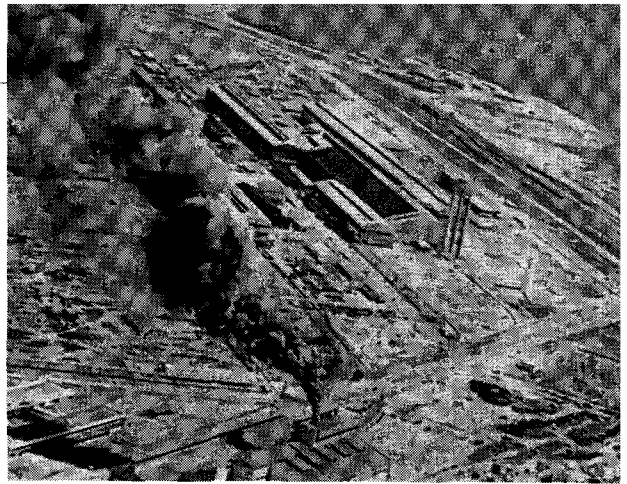
시민이 앞서야할 일을 관에서 주도했다는 약간의 불만은 있다. 그러나 환경원년으로 선포된 올해 수칙이 나온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환경수칙안을 보면 조금은 소극적인 내용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된다. 17개 항목 모두가 절실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느낌을 갖게되는 것은 관 주도 수칙제정의 한계에서 결과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가지 제한을 하고싶다. 환경원년이 가기전에 민간주도의 환경보호수칙이 나왔으면 한다. 여기에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실이 적발된 기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전개, 기업에 대한 상설 감시운동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이 기재됐으면 한다.

어차피 기업이 환경보호에 소극적이라면 국민이라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안겨준다. 기업내에 환경보호운동가의 참여를 고려중인 듀폰·폴라로이드,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결과



## 환경원년이 가기전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기업 감시운동 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이 기재된 환경보호수칙이 나왔으면...

적으로 이익을 올려준다는 인식전환을 한 수많은 기업들.....

이들 부러운 현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리라. 수백 수천에 달하는 공해고발과 법정투쟁, 불매운동에서 기업의 인식전환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투쟁과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흔히들 우리와 선진국의 격차를 20년으로 본다. 이럴 경우 우리 국민은 지금 외국국민이 20년전에 벌였던 환경보호운동에 착수해야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본다.

자연의 친구들등 환경단체와 시민의 연계활동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해 본다.

소심한 성격의 기자로서는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인 활동이 환경보호에 팔걸어 부치고 나서고있는 일부기업에 무차별하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이들 우량기업과 시민의 공동활동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파업이 발생하면 해당기업 사장은 물론 계열사 간부들도 수습에 총동원된다. 환경에 이와 같은 대처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과욕일지는 몰라도 중요한, 바람직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